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세션 7, 아모스, 종교적 죄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종교적 죄에 대한 7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한 장씩 다루기 전에,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주요 주제와 관심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침략과 군사적 패배와 포로에 대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8세기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두드러졌던 사회적 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부에 안주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와 탐욕이 억압과 사회적 불의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션 사이에 Hildebrandt 박사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녹음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복음 전파와 사회적 관심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교회 역사의 아주 좋은 예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가 그 좋은 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이보다 더 열정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지아의 고아들을 위한 기금 모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전적으로 사회 사역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면은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들의 몸과 육체적 필요, 사회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 사역으로 부르셨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개인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의 윤리와 정신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토라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과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매우 중요한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죄는 중요합니다. 아모스서에는 세 번째 주제가 있고 세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회적 불의이기 때문에 상호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과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부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예배의 움직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이자 세 번째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세기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모스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핵심 구절은 아모스 5장에서 다시 발견되며, 우리는 마지막 수업에서 그 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서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 잔치를 미워하고 경멸한다.

나는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노래의 소음을 나에게서 없애십시오. 당신의 하프 선율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단과 벳엘, 브엘세바와 길갈과 같은 장소에 있는 그들의 성소가 국가로서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성실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일곱 가지 다른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종교 활동의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완전한 목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음악을 싫어합니다.

나는 당신의 잔치를 싫어합니다. 나는 성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 노래의 소음을 없애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형편없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구약의 더 넓은 역사를 살펴보고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얻을 때, 북부에서 이스라엘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과 헤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북왕국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예배제도를 확립한 셈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다윗 왕조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종교 제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종의 대적 왕국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혁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장래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일어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제단과 성소를 헐고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만들어진.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종교적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겼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일은 그가 두 개의 별도의 예배 장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그의 왕국 북쪽에 있는 단에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베델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너희는 단에서 예배할 수 있다. 남쪽에 계신 분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올바른 예배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12장의 맥락에서 반드시 한 장소만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을 시작하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부터 확립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는 단과 벧엘에 자신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두 번째 혁신은 여로보암이 이 두 성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도상학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거나 하나님의 다산입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이 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탑승자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형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어떤 형태의 형상이라도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고, 주님께서는 이를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완전하고 진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예배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형상을 숭배하지 말며, 우상이나 거짓 신을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신명기 13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언약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우상이나 형상의 형태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모든 유형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배를 부패시켰습니다. 북쪽 왕국의 모든 왕들의 비판 중 하나인 이러한 종교적 혁신으로 인해 열왕기의 왕들 중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도 그들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밖에도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신명기의 예배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나 승인하지 않으신 거룩한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 여로보암의 삶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훌륭한 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곳입니다. 그러한 지시가 진행되는 중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북쪽 왕국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북쪽으로 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배도를 이해합니다. 그러한 배교는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예배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쪽 왕국 사역의 맥락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든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세벨은 두로 출신 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 출신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곳의 왕이고, 아합은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녀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공식 국교로 장려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 면에서 아합은 아마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적어도 한동안은 그의 왕국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배교를 촉진하고 바알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후 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왔지만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도한 일, 바알 숭배의 관행, 이교의 다산 의식의 도입, 이스라엘 숭배의 일부가 된 여성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숭배 . 아모스 시대부터 8세기로 넘어가면서 바알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북쪽 왕국의 대부분의 성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알 숭배와 결합된 야훼 숭배의 요소들이 혼합적으로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와 이 모든 것에 대해 호세아가 말하는 내용을 접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의 아모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 이해를 갖고 있는 혼합주의적 혼합이 있는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훼 숭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이교도의 다산 의식이 있습니다 . 금송아지 숭배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여러 성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예배 자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에서 아모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 숭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몇 곳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축제와 축제, 의식과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7개가 언급되어 완전한 숫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단지 혼합주의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동작을 취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지만, 별로 마음을 다해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다지 열정적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고, 설교를 듣거나, 최소한 듣기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하는데, 예배가 나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다. 아모스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것이 주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예배의 불성실함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고백과 규례와 예식과 주장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께서 너희의 노래 소리와 수금 선율을 내게서 그치라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당신의 음악이 싫어요, 당신의 관습이 싫어요, 당신의 희생이 싫어요. 단순히 그들이 이런 일을 미성숙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공의가 물 같이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시내 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적 죄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문제로 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단지 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와 언약 속에 살면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신다. 나는 정의의 신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나를 예배하려면 그 뒤에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통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정통적인 생활 방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이웃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윤리적 차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존 월튼(John Walton)은 고대 근동의 종교와 이교도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책임을 이행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서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개인의 주된 의무가 제의 영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선함은 그들의 제의 의식만큼 신에 의해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근동 종교나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의 신들이 윤리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문헌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살았던 것처럼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우선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튼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고, 신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고기 와 음식을 바쳤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한, 그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종종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들이 우리에게 화를 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종종 그들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지만 그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화나게 한 신을 찾아서 그에게 고기를 많이 주고 맥주를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그 신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한, 우리가 사회, 문화, 일상생활에 나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모스 2장의 그 구절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고, 출애굽기에서 당신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 가난한 이웃에게서 빼앗은 겹옷으로 깔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에게 바치는 일도 있고, 이웃에게서 벌금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 착취한 일을 하여 포도주로 하나님께 전제를 붓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입니다. 아모스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인 아모스는 단순한 배도도, 단순한 우상 숭배도, 금송아지도, 여기에 가져온 바알의 요소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배, 의식, 생활 방식 사이의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주제이자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오래된 진화 모델과 이해는 선지자들이 이전 종교의 의식주의를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윤리적 유일신교 사상을 가져온 혁신가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이 의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토라는 그러한 의식의 실행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고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귀중한 재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의미 있는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예식을 지켰을 때,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끌어내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의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배 관행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배 관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서 아모스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한 것과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며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유다 지도자들이 구약성서에서 사악함의 전형인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많은 희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숫양의 번제물과 당신의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는 황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모스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의 긴 목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것들을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는 의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위선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13절.

네가 내 앞에 나타나려고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네게 요구하였느냐? 내 뜻을 짓밟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불쾌히 여기십니다. 13절.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향은 나에게 가증한 일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의 소집.

나는 엄숙한 집회에서 죄악을 참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안식일의 법을 정하셨을 때 그것을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손을 펼치시면, 나는 당신에게서 내 눈을 가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좋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보는 것은 자신들이 이용했던 이웃들의 피이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항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유업을 누릴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올 것이 없었느니라 살인자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의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있는 불순종과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제물에 번제물을 더하여 그 고기를 먹으라 좋아요. 계속 나에게 이 모든 희생을 바쳐라. 그러나 당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2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관하여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극단적인 수사학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의식과 순종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특별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내 말을 순종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좇아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체로 제의 의식, 제의 의무, 즉 신들에게 제물, 제물, 음식, 음료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 언약에는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윤리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선지서 중 가장 훌륭하고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인 미가서에서 미가는 유다 백성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다시 이것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과 매우 잘 일치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미가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를 상상하며 6절에서 “내가 무엇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이나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와 함께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말은, 내가 이 넉넉한 제물과 희생을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 죄로 인해 내 장자들을 소금으로 바쳐야 하겠느냐? 내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최고의 희생이 될 것입니다.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이여, 그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선한 것, 곧 주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종교적, 윤리적 유일신교를 도입하는 혁신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의무가 단지 종교 활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아모스서에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헛됨,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종교적 의식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헛됨을 지적할 다른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성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준수, 더 많은 종교, 더 많은 관행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꽤 많은 예언적 풍자를 듣게 됩니다. 아모스는 벰엘로 와서 범법하라고 말합니다. 길갈로 가서 죄를 많이 범하라.

선지자는 그들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바는 벰엘과 거기 있는 성소로 가되 이 곳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라

하였느니라. 당신은 그곳에 와서 모든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범법하는 것뿐입니다. 너희는 길갈에 와서 너희 죄를 더할 수 있다.

그들이 이 장소에 왔을 때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그들의 헌금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배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해 당신의 죄를 더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3일마다 십일조를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고 가축과 재정과 농산물을 그들에게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 넣은 것으로 감사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니 이 책을 출판하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여기에는 5장과 같은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많은 종교 활동이 있지만 아모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더함으로써 행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범죄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나를 찾으면 살리라. 좋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나타내다라는 말씀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뒤쪽 버너에서 꺼내어 앞쪽 버너에 다시 올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조는 '나를 구하면 살리라'이고, 5절의 대조는 '벤엘을 구하지 말라'이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건너가지 말라. 따라서 다시 세 가지 다른 성소가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소를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특별히 이 성소들이 있는 도시들과 마을들에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역을 자신들을 보호할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길갈과 베엘과 브엘세바를 남방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본 것과 같이 보았느니라.

아, 여기가 신이 있는 곳이군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자체가 결국 행운의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토끼발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은신처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인용하시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는 길갈과 베엘과 브엘세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히브리어로 들리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이곳의 말장난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길갈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길갈- 갈로 - 이글 .

포로로 가라는 말씀, 갈라, 길갈, 그 말씀들의 상호관계. 마을 이름인 하길 갈, 부정사 갈로, 이글이 유배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우리가 아직 구원하지 못한 곳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와 이런 종류의 이해에 대한

치료법은 우리의 의식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든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나는 바벨탑에 세워진 시스템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이 탑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하도록 신들을 조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종교적 제사와 번영과 길갈과 같은 곳에서의 예배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아모스는 말했습니다. 단지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모스는 궁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주요 주제, 즉 부에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예배의 움직임. 아모스가 그의 메시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아모스의 말, 즉 수년간의 사역과 그가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나타내는 9장으로 구성된 매우 집중된 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도다.

목자들의 목자들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느니라.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부적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면, 예배의 몸짓을 하고 제물과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즉 그들은 하나님을 우는 사자와 천둥치는 폭풍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놀라운 변영의 시대를 누린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유익했을 메시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과 마주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와, 우리가 이 개념을 볼 때 얼마나 큰 대결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는 사자와 같고 주님은 천둥 같은 폭풍과 같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와 신학의 서문이다. 아모스서의 통일된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는 사자로, 하나님을 천둥 같은 폭풍으로 보는 이 관념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 제가 소선지서에 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이 책들을 공부할 때 단순히 책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와 신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참 신선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의 철학적 범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무미건조하고 철학적이며 일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 편재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과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범주는 중요하고 자리가 있지만 선지자들은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와 은유를 상상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 은유를 사용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허락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총만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구약성경 전반에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 전체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보는 것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로 구약성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왕권이 무엇인지 알았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경험과 삶, 즉 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그들의 삶에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으로부터 얻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은 그런 문화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115편에서처럼 하나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그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은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윤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이것은 종종 자유주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 기독교인이 구약성경을 폄하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윤리, 구약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신다는 현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모스 40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팔로 안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양이라도 그분은 안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와 은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결혼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을 사자와 폭풍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책 전체를 관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장에서 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신다. 아모스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에서 포효합니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부르짖겠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당신은 사자가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당신을 삼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사자가 포효했습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궁금하다면 아모스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아모스는 왜 우리에게 말하려고 남쪽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선지자의 경고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로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메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대적한다면, 이 심판은 신속하고 엄중할 것입니다.

3장 12절, 이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생각에 이것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상 한 귀퉁이와 침상 한 조각으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실 때 이스라엘은 사자 입에서 찢겨 나온 어린 양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리 두 개나 귀 한 조각뿐이다. 혹은 네가 네 호화로운 집과 침상 한구석과 침대 한구석을 사마리아에서 구원해 낼 모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이십니다.

받아 들여. 5장 19절,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날은 빛의 날이 되리로다.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암흑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난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사자와 꿈을 피하여 집에 들어가 집을 담에 기대다가 뱀에게 물렸느니라. 우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모스서 전체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안일한 사람들 앞에 놓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우리 문화, 즉 '하나님, 그를 당연하게 여기세요'라고 말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집중합시다. 그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그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약성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내용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현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에 관한 질문이

생각합니다. 그는 안전할까요? 물론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이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선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안전한 신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는 또 다른 이미지는 그분이 천둥 같은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를 폭풍의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 구약은 그 이해를 바로잡고 폭풍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름을 탄 자는 바알이 아니다.

야훼입니다. 그러나 폭풍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실 폭풍에 대한 개념은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널리 사용되는 은유 중 하나입니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그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시며 아침을 어둠으로 만드시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이가 그 이름이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는 바람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5장 8절과 9절. 오리온자리에 플레이아데스를 만드시며 캄캄한 어둠으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낮으로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시니 그가 강한 자를 향하여 파멸의 빛을 발하게 하사 그 산성에 파멸이 임하게 하시는데도 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격렬한 폭풍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9장 5절과 6절. 주 만군의 하나님 곧 땅을 만져 녹이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다 애곡하며 온 땅이 나일강 같이 오르고 낮아지는 애굽의 나일강 같이 되시는 이시로다. 하늘에 다락방을 세우시고 바다 위에 궁창을 세우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루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그 나라를 멸망시킬 지진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는 예배의 움직임을 겪고 있는 사회에 직면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폭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소선지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림과 형상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종교적 죄에 대한 7번째 강의입니다.